

스릴러 영화가 온다

‘스릴러 영화가 온다’

2008년 화제작이었던 ‘추격자’와 ‘세븐데이즈’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스릴러 영화가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연기파 배우들이 쫓고 쫓기는 역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크릿’은 살인 현장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한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세이빙 마이 와이프’라는 가제로 먼저 알려졌다.

의문의 살인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는 혼란에 빠진다. 와인 잔에 얼룩진 핑크 바이올렛 립스틱, 소파 아래 떨어진 검은 벨벳 단추, 그리고 귀걸이까지 현장에 남겨진 살인의 흔적들이 아내의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충격 속에서 그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아내가 남긴 증거들을 없애기 시작한다.

차승원이 장기인 코믹 연기 대신 냉철한 형사 역을 맡았으며 그와 대결을 펼치는 재갈역은 연기파 배우 류승룡이 맡았다. 남편을 근경에 빠트리는 아내 역으로 송윤아가 출연하며 ‘해운대’의 김인권과 내공이 탄탄한 배우 박원상이 조역으로 합류했다. 김윤진·박희순 주연의 ‘세븐데이즈’ 각본을 맡았던 윤재구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고의 부검 전문의와 치밀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갖춘 살인범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스릴러물인 ‘용서는 없다’ 역시 기대 되는

‘시크릿’ 살인 현장서 아내의 흔적 발견한 형사의 이야기
‘용서는 없다’ 부검 전문의와 살인범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백야행 ...’ 15년 전 살인사건이 빛은 세 사람의 비극적 운명

작품이다.

과학 수사대 최고의 실력과 부검의이자 경찰 대학에서 가장 존경 받는 법의학 교수 강민호는 살인사건 용의자 이성호와 대적하면서 미묘한 감정 변화를 겪는다.

김형준 감독의 데뷔작으로 김 감독은 2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과 분석실을 비롯해 과학수사대원과의 인터뷰 등 철저한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과학 수사의 세계를 실감나게 그려냈다.

‘실미도’에 이어 ‘해운대’로 두번째 천만 관객 동원 배우가 된 살경구가 부검의 역을 맡았으며 개성과 배우 류승룡이 그와 두뇌 게임을 벌이는 살인범으로 등장한다.

‘주몽’의 헤로인 한해진은 뛰어난 추리력과 행동을 앞세운 열혈 형사 민서영을 연기한다.

15년 전 살인사건에서 비롯된 세 사람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백야행-어둠 속을 걷다’도 눈길을 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이후 살인자가 되어 버린 남자와 이제는 14년 전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여자,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온 명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형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다.

‘용의자 X의 헌신’, ‘비밀’로 유명한 일본 추리문학계의 인기스타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이 원작인 ‘백야행’은 여주인공 미호의 지독한 드라마이자 그녀를 위해 살인자가 된 남자 요한의 슬픈 사랑 이야기이기도하다.

5년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고수가 고독한 살인마 연기를 통해 깊어진 눈빛을 선보이며 연기파 배우 한석규는 그를 쫓는 형사로 호흡을 맞춘다. 신비로운 미소 속에 어두운 과거를 감춘 팜프파탈 느낌의 여주인공으로는 손예진이 출연한다.

미장센 단련영화제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던 신예 박신우 감독의 데뷔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용서는 없다



류승룡



백야행



시크릿

새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각기 다른 성향의 세 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다. ‘길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 등을 통해 ‘독특한 유머’를 선사해온 장진 감독의 작품이다.

일생을 민주화에 몰바친 김정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244억원짜리 로또에 당첨되자 기부할 것인지, 자신이 가질 것인지 갈등에 빠진다.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펴던 차지욱 대

독특한 대통령들

장동건 첫 코믹연기

화려한 캐스팅 화제

통령은 과장년의 무리한 요구에 고민을 거듭하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환경자 대통령은 청와대에 적응 못하는 서민 남편 때문에 이혼 위기에 몰리게 된다.

화려한 캐스팅은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이다.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한 장동건이 영화 데뷔 후 처음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하며 이순재·고두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임하룡이 고두심의 남편으로, 한재영의 장동건의 연인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장진 사단’으로 불리는 장영남과 박해일도 얼굴을 내민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할 드립니다. 2. 검사합니다. 3. 고치실 때까지입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 수원점 (061) 752-9940 / 목포점 (061) 262-9200 / 송림점 (061) 227-9970 / 리산점 (063) 851-2422

최정민 특수장비우레탄폼 비새는집 망수전문기업

● 저지보수 1억원 책정보장 ●

이제 중장비시요! 반 반반 시공으로 영구적 방수, 단열, 보온이 보충되는 우레탄 폼시공

☎ 동성인막건설 투루상업 ☎ 010-504-0008 신성문의 ☎ 010-5415-0073

산水土風

최고의 자연환경, 최고의 교육환경, 최고의 생활으로 명사출산입니다.

☎ 434-0001 산水土風을 만나다